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22
VOL.244

RALPH LAUREN

RL.CO.KR



랄프 로렌 컬렉션 스토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TEL. 02 3467 6560



CHANEL



CHANEL



기록 이상의 기품

로저 페더러 선수의 경우, 그의 업적을 설명하는 숫자가 다소 복잡합니다. Grand Slam® 타이틀 20개, ATP 타이틀 103개, 세계 1위 유지기간 310주, 1,240회 이상의 승리...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핸드 슬라이스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사이드라인 가까이 떨어지는 빠른 포핸드, 그리고 서브의 궤적과 발리의 각도 등 그의 플레이를 설명하는 기하학 역시 상당히 놀랍습니다. 앞으로 스코어보드에 뭐라고 쓰이게 되든 그의 전설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플레이는 대부분 계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작에서 나타나는 우아함,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만의 멋진 샷, 코트 안팎에서의 기품. 시간이 지날수록 로저 페더러의 유산은 그 어떤 기록보다 더 변함없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Perpetual #변함없는탁월함



OYSTER PERPETUAL
SKY-DWELLER


ROLEX



BOTTEGA VENETA



올가을 윌프 로렌 컬렉션은 우아한 로망틱 트윈드에서 영감을 받았다. 슬리밍 모던 실루엣과 패이아일, 플로럴 패턴을 이롭게 조화시켜 독창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현대 여성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정교한 우아함과 타원리프스를 강조했다. 세련되고 구조적인 테일러링, 클래식 장갑과 고품격 스포츠웨어 등으로 새겨진 럭셔리 표현한 이번 시즌은, 윌프 로렌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믹스 매치 룩으로 컬렉션에 유머를 더했다. 문의 02-3467-6560



14

- 16 **THE ART OF EXPERIENCE** 저자지 못한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저(자기 소유 차량)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단지 개인의 공간을 넘어 나만의 영역처럼 활용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첨단 이동 수단에 대해서라면 지갑이 아낌없이 열리기 위해, 프리미엄 자동차의 인기는 갈수록 더해진다.
- 18 **IDENTITY QUEST** 멀리 미국 시카고에서 찾아온 작가 맥아서 비닌(McArthur Binion)은 1970년대 뉴욕의 블랙 이빨가르드 흐름을 함께하며 꾸준히 활동했지만 60대 중반에 들어서야 주목받기 시작한 추상화 거장이다.
- 19 **WELCOME ART LOVERS** 글로벌 미술 애호가들에게 본격 손짓하고 나선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를 미리 살펴본다.
- 20 **TIME FACTORY** 삼정의 역동적인 움직임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스타일리시한 위치의 매력.
- 22 **DEEP IMPACT** 깊은 심해처럼 짙은 블루 컬러로 보고만 있어도 풍덩 빠져버릴 듯한 매력의 딥 블루 다이얼 워치.
- 23 **HIGH DEFINITION** 모던하면서 룩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더해줄 남성 브레이슬릿.
- 24 **BLACK & PINK** 가장 강렬하고 가장 유혹적인 색, 블랙의 매력.
- 32 **AUTUMN ESSENTIALS** 쌀쌀한 바람이 부는 계절, 남성의 스타일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2022 F/W 캐주얼 재킷 4.
- 33 **RUNNING MATE** 발이 편한 것은 물론 센스 있는 룩을 완성해줄, 조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남성 스니커즈.
- 34 **BE GENTLE!** 날카로운 취향과 남다른 안목을 지닌 남성을 위한 셔츠 & 타이 스타일링 제안.
- 35 **EYE CATCHER** 개성을 드러낸 감각적인 스타일로 시선을 끄는 2022 F/W 맨즈 아이웨어 컬렉션.
- 36 **LIFELONG JOURNEY COMPANION** 이번에 새로운 캠페인과 함께 리모와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매장을 오픈하며 또 다른 혁신으로 새롭게 다가온 리모와를 만나보자.
- 38 **HONEY GLAZED** 무르익은 과일처럼 유려하게 빛나는 글라스웨어.
- 39 **BOTTOMS UP!** 오감을 예리하게 일깨워줄 요즘 술.
- 40 **EXPLORATION OF INCENSE** 이제 파린 어느 골목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향 마니아들이 기다렸던 새로운 나치 향수를.
- 41 **PACT CHECK** 수정 화장용을 넘어 파운데이션을 대체할 새로운 쿠션 팩트의 도약.
- 42 **EDITOR'S PICK** 날씨도 마음도 살리는 계절,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달의 뷰티템 13.

Style 조선일보 Issue.244 October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라온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장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장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 권신비 분혜, 재민 | 리은 인세 | 타라타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HE NUDO COLLECTION DESIGNED IN MILAN



PIAZZA VI FEBBRAIO
RENATO FERRARI

Pomellato

MILANO 1967

CLIENT SERVICE CENTER · 02 3143 9486



WATER DROP

물방울의 모양과 반짝임을 그대로 녹여내 뛰어난 느낌을 주는 주얼리 컬렉션.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블루 아이벌 베를리 다이아몬드 파베 아이링** 물방울을 연상시키는 타원 모양의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완성한 아이링 4선2백만원대, 문의 1877-4128 **소에 조세핀 아그레트 펜던트** 물방울 모양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 1개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V 세이프로 감싸고 있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 펜던트 1천20만원대, 문의 02-6905-3390 **타피니 타지나-이브 솔리스트 아이링** 컬러 젠스톤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담은 패어 컷 젠스톤과 2줄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아이링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포토그래퍼 최인영 에디터 성경민 어시스턴트 신장림**



MODERN ELEGANCE

첫시절 워치메이킹 작품인 프리미에르는 1987년 당시 시셀 이타스틱 디렉터였던 자크 엘루(Jacques Helleu)가 고안했다. 시계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그 시절 여성을 위해 시셀에서 처음 고안한 워치로 시셀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다. N5 향수병의 스토파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적인 케이스 형태는 물론 시셀의 상징적인 쿨링 백에 사용한 레더와 함께 엮은 체인 스트랩을 매력해 이코닉한 시셀 워치를 완성한 것. 탄생 35주년을 맞아 오리지널 버전으로 다시 출시한 이 워치는 그때 그 감성을 오롯이 재현했다. 18K 옐로 골드 코팅한 스틸 케이스에 블랙 레커 다이얼을 시크하게 매치했으며, 카본스 컷 오픈스를 세팅하고 블랙 레더 스트랩으로 엮은 18K 옐로 골드 코팅 스틸 체인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했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사이즈는 26.1x20x7.65mm로 여성의 가는 손목에 우아하게 매치된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공간을 채우는 향

파리에 위치한 다탈코 최초 부티크의 분위기를 향으로 구현하고자 탄생한 '생제르망 34번'가 컬렉션. 캔들, 디퓨저, 룸 스프레이, 설탕 오일 등 다양한 종류의 홈 프라이어런스 아이템으로 구성된 라인업이 눈에 띈다. 특히 타원형 유리 글로브 형태의 디퓨저는 구멍이 뚫린 금속 외장으로 블랙과 골드 컬러 조화를 이루는 프레토리언 패턴으로 장식되어 미치 오븐제 같은 예술적인 장식미를 극대화했다. 또 실내에서 향을 일장하게 잔파하도록 고안되어 오랫동안 34 컬렉션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75ml 27만원, 문의 02-3446-7494



EMOTIONAL VELVET

샘플해진 날씨에 따스한 감성을 더해줄 벨벳 소재 슈즈.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버드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고트 스킨 소재의 **핀트스 1백10만원대 에메스**, 문의 02-542-6622. 핑크 컬러와 리본 디테일로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하는 아이 리본 비버드 블루 솔라렉 플 1백16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브라운 아이덴티티를 담은 금강 T 로고 포인트의 스웨이드 소재 드래곤 슈즈 80만원 **토조**, 문의 02-3438-6008 **포토그래퍼 최인영 에디터 성경민 어시스턴트 신장림**



VIVID TWEED

늘 기다려지는 시셀의 F/W 신상 백. 이번 시즌에는 소재의 변주와 컬러로 새로운 무드를 만들었다. 올 하반기에 가장 핫한 컬러인 비버드 핑크 컬러의 백으로 캐시미어 트위드 소재로 만들었다. 미니 사이즈로 액세서리처럼 활용하면 평범한 룩에 강렬한 포인트와 개성을 얹어줄 것이다. 버클과 골드 메탈 체인 중간중간에 장식한 플라워 장식까지 귀엽고 시크스러운 룩을 완성한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CHARMING LINKS

어느 룩이나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웨어러블한 포멀과 캐주얼의 체인 링크 주얼리 컬렉션 중 네크리스를 소개한다. 모던한 디자인에 4백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벌 링크를 더해 눈길을 사로잡는 이코닉한 네크리스가 그 주인공. 알핏 향방해 보자! 체인별로 다양한 세이프와 사이즈를 갖춰 클래식하면서도 다채롭고 패셔너블한 감성을 더한다. 18K 로즈 골드 총 4.2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찬란한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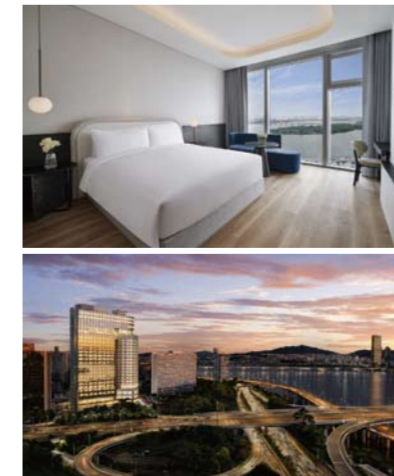
관능적인 벨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1968년 디자인한 세베르 보헨 컬렉션은 벨의 머리를 상징하는 드롭 모티브와 '하느님'들을 사용하고 끝을 이용해 벨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구현, 보헤미안적 느낌을 풍성하게 표현했다. 총 11.7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6백40개를 세팅한 18K 골드 세베르 보헨 솔리더 네크리스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지니며, 다이아몬드 드롭이 후광처럼 번쩍어 얼굴을 더욱 환하게 밝혀준다. 문의 02-772-3508



FEEL REFRESHED

천연 유래 성분으로 완성하고 즐기는 프리미엄 치약, (우로부터) **마비스 클래식 스트롱 민트** 강렬한 인트 향이 일관적 샴페인을 선사한다. 천연 지질리듬 생분으로 구취 제거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다. 85ml 12953백원, 문의 02-2201-1227 **라 덴스 포 배드 브레스 치약** 인취를 흡착하는 숯 성분이 구취를 완벽하게 제거해준다. 코코넛 오일을 함유해 양치 후에도 텁텁하지 않고 7분 출제 마무리할 수 있다. 100g 925백원, 문의 1661-2136 **로다움 프롬 씨 워일드 자스민 미트** 유가농 미트 허브와 천연 유칼립투스 추출물 100g 925백원, 문의 1661-2136 **로다움 프롬 씨 워일드 자스민 미트** 유가농 미트 허브와 천연 유칼립투스 추출물 100g 925백원, 문의 02-6949-3442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미 어시스턴트 신장림**

호텔 나루 서울 - MGallery



세련된 감성의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 서울의 호텔 풍경에서 자못 이슈를 퍼줄 조카였다면, 그 공백을 채워줄 '뉴 페이스'가 마포에 등장했다. 글로벌 그룹 아코르(Accor) 계열의 부티크 호텔 브랜드인 엠갤러리(MGallery)가 한국에 첫선을 보인 것으로, 마포 나루리는 옛 지명을 차용해 호텔 나루 서울 - 엠갤러리는 이름을 지니게 됐다. 한강과 밤섬, 서울의 스카이라인 등을 즐길 수 있는 사우스 전망, 자연과의 연결을 이끄는 듯한 바이오 필릭 디자인을 적용해 '평온+칼꿈이 깃든 인터리어 등 전반적인 구성은 물론 생생한 디테일의 미학이 느껴지는 호텔이다. 운치 있는 강변 경치에 영감을 예술가들이 많이 찾았던 자적, 역사적 배경을 살려 현대적인 외관의 호텔 건물 입구 앞에는 최정화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 '세기의 선물'이 눈길을 끌며 내부에도 일부 미술품을 활용한 20층 로비에 양재규 작가의 '정교'를 하로가 자리하는 등 예술 작품이 곳곳에서 반겨준다. 지하 철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며 1백90개 객실, 한강 뷰를 즐길 수 있는 **프린트 레스토랑 부이징(Restaurant Voisin)**을 비롯한 5개의 레스토랑, 도심 속 힐링을 부르는 **인파티 풀과 실내수영장** 등을 갖추었다. 문의 02-6410-1000, 웹사이트 hotelnarusoul.com



정교하게, 견고하게

랄프 로렌을 상징하는 스포츠인 스타. 그 모티브 중 하나인 말안장에 달린 등자의 매끄러운 윤곽을 나타낸, 근본에 충실한 웰링턴 백을 소개한다. 솔라백, 크로스보디백, 백백에 이어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덕트 백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에 고급스러운 울리브 컬러로 아이에나 적용해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 수공예 소가죽으로 더욱 정교하게 제작했으며, 플랩 부분 스템릴 버클에 새긴 랄프 로렌 로고 같은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배가한다. 랄프 로렌 컬렉션 웰링턴 백은 국내 유일 랄프 로렌 컬렉션 매장인 랄프 로렌 컬렉션 현대 무역센터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7-6560

장업 형태 강의로 스포티한
감성을 주는 스포츠카 비스코스 피케
니트 카디건 2종 19,900원 디올.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포인트를 더한
비마이 러브 펜던트
495,500원 디올 쇼메.



브랜드 상징인 트리오페 미크의
코듀로이 소재 베이스볼 캡
가격 미정 셀링스.



아디다스 7-구멍 칼라베이지엔
로고 포인트인 블랙
글러브 60,000원 구찌.



브랜드 7-구멍 칼라베이지엔
매트릭스 포인트 골드 소재의
클래시 드레블로에 링
595,000원 구찌 쇼메.



브랜드 시그니처 세이프인
삼각형 모양의 시프미노
가죽 소재 유닛백 스타일백
28x18cm, 495,500원 프라다.

for her Selection

활동적인 가을날, 편안함과 패셔너블함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한 애슬레저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올 화이트 세라믹
보드에 심플한 블랙
라디안으로 장식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J12 워치 칼라버 12.2.
33mm, 9백80만원
샤넬 워치.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세미
캐츠 아이 프라임이 매력적인
타이탄 GRC2 선글라스 34만원
켄달모스터.



레더와 나일론이 적절하게
섞인 소재와 로고 플레이가
돋보이는 율리아 슈즈
1백90만원 샬비토레
페라기모.



100% 재활용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코튼으로만
제작한 친환경 스니커즈 98만원대 콜로에.



애슬레저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헤드밴드 백
1만5천원 언더아머.



블랙과 화이트로 심플한
감성을 더하고 소매
부분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블랙 니트 크롭트
스웨터 2백28만원
루이 비통.



100% 리얼 레더로 만든 패딩 감성의 미니 백.
10x6cm, 가격 미정 2 중급레트 1952.



로즈 골드 소재에
말라카이트 장식으로
패셔너블하고 다이아몬드
더한 디자인으로 워터방울
준 블랙 니트 크롭트
스웨터 2백28만원
루이 비통.



스웨터와 가죽과 부드러운 나일론 소재의 조합으로 여왕기
만한 퍼포먼스 시 스타일 시 캐주얼 장아름다운 카트 케이스.
12.5x8cm, 37만원 MCM.

디올 02-3480-0104 쇼메 02-3443-3359 셀링스 02-1588-6576
프라다 02-3218-5331 가브리엘레 1877-4326 샤넬 워치 080-805-
9628 켈달모스터 1600-2126 구찌 02-3452-1521 샬비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콜로에 02-6905-3670 언더아머 1577-9691 2 중급레트 1952 080-311-0000
블라귀 080-805-9638 루이 비통 02-3432-1854 MCM 02-540-1404

TOD'S KOREA INC. 02 3448 8201



TOD'S

TODS.COM

WHAT MOVES YOU,
makes you



Cillian Murphy with his
 Extreme 3.0 Backpack.

GIVENCHY

카무플라주 프린트가 개성 있는 록 연출을 돕는 G 에센셜 카메라백. 20x14cm, 1백66만원 **자참시.**

독특한 기하학적 프레임과 컬러 렌즈가 매력적인 선글라스 10218천원 **프리다 르네로사 by 에실로 룩스타카.**

올 블랙 티타늄 및 스틸 소재로 캐주얼한 매치가 가능한 포스텍 원치 팬드트 2백55만원 **프리드.**

FF 로고 플라이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브라운 컬러 패브릭 베이시볼 캡 69만5천원 **프리드.**

스타일은 물론 편안함을 겸한 크루넥이 디테일 후드 장갑 1백11만원 **프리드.**

레더와 스퀘이드 등 다양한 소재와 컬러가 공베어선된 디자인이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는 워터스프레이즈 1백만원대 **토즈.**

올 블랙 티타늄 및 스틸 소재로 캐주얼한 매치가 가능한 포스텍 원치 팬드트 2백55만원 **프리드.**

엘로 골드 소재의 브랜드 시그니처 LOVE 링 4백만원대 **까르띠에.**

프리다 르네로사 by 에실로 룩스타카.

for him Selection

기본 좋은 주말 나들이를 위한 남자의 선택.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센스 있는 남성을 위한, 블랙 샌드블라스팅 처리한 그레이D2 블랙 DLC 티타늄 소재의 전자 워터 카부티드 갈라버 E4-포르에 에디션 3백75만원 **태그하이어.**

온전한 인텔리전트 그레이 모노그램 패턴이 매력적인 세드 송이카자쿠 2백77만원 **루이 비통.**

독특한 컬러 배지가 눈에 띄는 다크 스퀘어 플릭스 나이트즈 1백12만원대 **에비엔.**

자참시 02-3479-6137 **에실로 룩스타카** 02-501-4436 **브루넬로 쿠차렐리** 02-3448-2931
토즈 02-3438-6008 **벤디** 02-514-0652 **블가리** 02-2056-0170 **프리드** 070-4732-0479
나이키 1877-4326 **태그하이어** 02-548-6021 **루이 비통** 02-3432-1864 **몽클레르** 080-311-0000
에르메스 02-542-6622 **한스타일닷컴** 1588-3717 **까르띠에** 1877-4326

로즈 골드 소재에 블랙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주어 시크한 감성을 부여한 비제로원 링 2백11만원 **블가리.**

손을 자유롭게 해줄 드로스팅 앵커 백팩, 35x44cm, 89만원천원 **JW 앤더슨 by 한스타일닷컴.**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의 라이프스타일 마케팅

the art of experience

지गत지गत한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자차(자기 소유 차량)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사실 자동차는 다분히 상향 평준화된 영역이다. 하지만 단지 개인의 공간을 넘어 나만의 성역처럼 활용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첨단 수단에 대해서라면 지갑이 아낌없이 열리기에, 프리미엄 자동차의 인기는 갈수록 더해간다. 그럼에도 상황이 상황인지만 되도록 비대면 마케팅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유지해야 했던 시기가 오래도록 이어졌지만, 언젠가부터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감을 주고받는 체형 마케팅의 나래도 다시금 활짝 펼쳐지고 있다. 고객으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직접 느껴보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경험은 믿음과 지지를 보내고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힘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팬데믹 위기로 비롯된 전 지구적 제동도 자동차 산업의 질주를 막지는 못했다. '친환경', 'SUV', '럭셔리'라는 트렌드 키워드로 요약되는 프리미엄 시장 영역에서 바라볼 때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말고도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물류와 생산 부문에서 차질이 생기는 등 잡음은 끊임없이 생기고 있지만 이는 수요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역시 프리미엄 자동차 수요의 상승 곡선이 두드러진 시장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실제로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입차의 연간 판매량 30만대를 넘었던 호성적이거나 제네시스(현대차)의 인기도 그러한 수요를 말해준다. 올봄 전설적인 모델 18대로 서울 DDP 전시장을 수놓았던 아시아 최초의 포르쉐 브랜드 뮤지엄 전시(포르쉐 이코넨, 서울(Porsche Ikonen, Seoul) - 스포츠카 레전드(Sportscar Legends))에서 만난 독일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고객들이 정말 고마워서(답례로) 뭐라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전자사 시대, 탄소 배출 저감만이 정답일 리 없지!

올들어 신규 등록(수입 승용차 기준) 대수는 줄었지만 전기차는 여전히 기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물론 고유가 같은 외부적 요인과 정부 보조금 같은 당근책의 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대세라는 데는 물음표를 달 수 없을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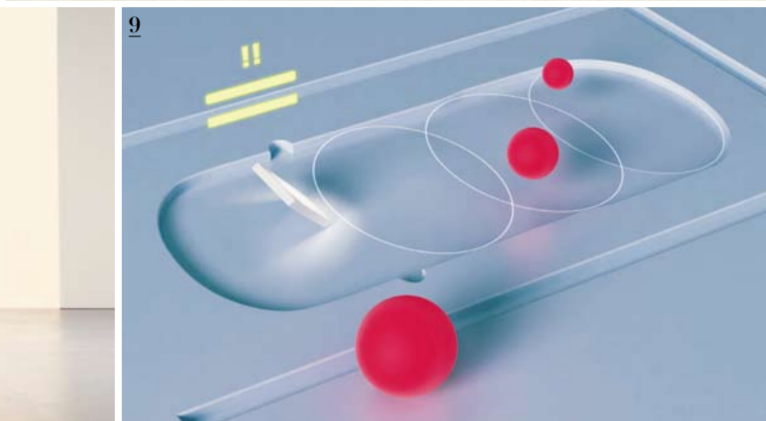
다.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2030년경엔 신차의 절반 정도는 전기차로 내용을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를 둘러싼 다양한 마케팅 행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하다. 전기차와 함께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의 풍경을 쉽게 기능하게 만든 최대 규모의 행사로는 단연 포물러 E를 꼽을 수 있겠다. 탄소 배출을 지양하는 전기차 스트리트 레이싱 시리즈 포물러 E 월드 챔피언십의 시즌 마지막 경기인 서울 E-프리(E-Priz)가 지난 8월 13일(15라운드)과 14일(16라운드)에 걸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서킷에서 진행되기도 했다(15라운드에는 재규어 TCS 레이싱의 미치 에번스 선수가 우승을, 16라운드에는 로키 벤추리 레이싱의 에두아르도 모타라 선수가 1위에 올랐고, 시즌 챔피언 타이틀은 메르세데스-EQ(벤츠) 포물러 E 팀의 스토펠 만도른 선수가 차지했다). 스피드 추종자들은 당연히 포물러 원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포물러 E만의 매력이나 몸 오감을 사로잡는 행사였다. 지반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떠돌아다니는 엔진의 소음 대신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듯 초현실적 분위기의 소리는 꽤 이채롭고 매력적이었다. 소음과 매연이 없을뿐더러 일반 엔진을 장착한 차에 비해 부품 수가 적은 단순한 구조를 활용한 디자인의 미학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아우디는 최근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콤팩트 SUV인 '더 뉴 아우디 Q4 e-트론'과 '더 뉴 아우디 Q4 스포트백 e-트



론' 모델을 시장에 처음 선보였는데, 여기서도 전기차 디자인 언어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차량 전면부의 수직 스트럿이 들어간 팔각형 상급 프레임 전면 그림은 날렵한 디자인으로 순수 전기 모델의 디자인 특징을 드러내며 실내의 경우 간결한 동력 구조 덕분에 앞뒤 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수납공간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아우디는 얼마 전 서울 가로수길에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제시하는 브랜드 전시관 '하우스 오브 프로그레스'를 꾸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신모델 2종을 비롯해 아우디 RS e-트론 GT 등 자사의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여 고객이 직접 보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미래의 프리미엄 모빌리티와 대도시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했다는 아우디 어반스피어(urbansphere) 콘셉트카를 처음 공개했는데, 이동식 영화관이나 모바일 오피스로 쓰일 수도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독립적으로 주차 공간을 찾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 등을 뽐냈다. 아우디 AG 최초의 여성 익스테리어(외관) 디자이너인 박슬아 씨는 어떻게 퍼스트 클래스 경험을 창출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성, 문화예술을 내세운 라이프스타일 마케팅
고객의 선호가 점점 가심비가 뒷받침하는 프리미엄에 쏠리고 여가 지향성을 띠면서 자동차 브랜드들은 브랜드 비전을 한층 더 흥미로운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에 담아내는 '체험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각종 시승 행사, 골프 대회,



레이싱 등을 후원하는 전형적인 행보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웰니스, 감도 높은 문화 예술 등 보다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기획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전국 전시장 아홉 곳에서 스웨디시 럭셔리 문화를 체험하는 '볼보 체크인 플라시'라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지난 10월 6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자사의 신형 세단 'S90'과 플래그십 SUV 'XC90'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무대와 공연, 팝업 전시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전대 스웨덴 예테보리에 위치한 네페르티티(Nefertiti) 재즈 클럽을 모티브로 한 무대에서 뮤지션 정영, 정인, 양지가 다채로운 재즈 공연을 선사하고, 예테보리 콘서트홀 모드를 지원하는 영국 바위스앤윌킨스(B & W) 프리미엄 오디오의 하이엔드 라인업 청음 세션을 꾸리는 식이다. 현대차는 고양과 부산에 자리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지속 가능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전개한다(11월 13일까지). MZ 세대의 폭넓은 연령층을 감안해 '친환경 가드닝과 건강한 비건 쿠킹', '사찰 음식 배우기' 등의 일일 클래스를 운영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13일에는 세이마켓(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을 통해 친환경, 리사이클링 품목의 나눔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여름 패밀리 전기 SUV '더 뉴 EQB'를 출시하면서 부산 영도의 핫한 복합 문화 공간 파이(P.ARK)에서 지역

1 아우디는 얼마 전 서울 가로수길에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제시하는 브랜드 전시관 '하우스 오브 프로그레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브랜드 체험을 지원하고 아우디 어반스피어(Urbansphere) 콘셉트카는 콘셉트 카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2 전기차 스트리트 레이싱 시리즈 포물러 E 월드 챔피언십의 시즌 마지막 경기인 서울 E-프리(E-Priz)가 지난 8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서킷에서 진행됐다. 시즌 챔피언 타이틀은 메르세데스-EQ(벤츠) 포물러 E 팀의 스토펠 만도른 선수가 차지했다. 3 아우디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콤팩트 SUV인 '더 뉴 아우디 Q4 e-트론'과 '더 뉴 Q4 스포트백 e-트론'의 모습. 4 지난해 부산 영도의 복합 문화 공간 파이(P.ARK)에서 패밀리 전기 SUV '더 뉴 EQB'를 선보인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행사장. 5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진행 중인 '해바라기 Habit One'을 풍경, 전시장 장치를 따라 배워온 '포토샵' 워크숍에서는 이번 전시 전에 참여한 예술로직 스튜디오 프로젝트의 핵심인 '양자 기반'을 접할 수 있다. 6 자연을 한 국가(자연)에서 처음 공개한 한정판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010 비보 S 680 4MATIC 에디션 100'. 7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스웨덴에서 사립 친환경 레스토랑인 김유에 버린 '쓰레기'를 줄이는 '플로링 문화'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8 시즌 7월 브랜드 캠페인으로 플로링 행사에 참여한 '윤성아'와 '김유에'의 모습. 9 아우디는 연말 공개될 볼보의 차세대 순수 전기차 'EX90'의 기반이 되는 콘셉트 카 '렌다링 이리자'와 '실내 레이더 시스템' 그래픽. 10 렌다링의 상징적인 모델 '렌다링' 탄생 75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한정판 모델(사진 게재)인 '11 영국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과 국내 디자인 브랜드 '리얼리'의 협업에 출시한 '맥라렌 리얼리 GT 이트카'. 12, 13 포르쉐코리아와 K-팝 걸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의 디자인 협업으로 탄생한 모델인 '최근 공개됐다. 14 '포시'를 만들어내는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에서 개인화 수준이 가장 높은 '존더분쉬(Sonderwunsch)' 프로그램으로 나온 디자인으로 차량 외관은 '메탈릭 블랙 컬러, 안티라임 블랙 컬러, 크롬, 마이스텔루 컬러 조합을 택했고 헤드라이트는 '제니'가 디자인한 '구름'으로 장식했다. '제니'의 존더분쉬 모델은 서울 창동동 '존더분쉬 하우스'에서 오는 10월 26일까지 전시된다. * 이미지 제공: 각 브랜드

권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었는데, 무려 5천 명이 상이 9일에 걸쳐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브랜드 경험의 극대화를 위해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즐기면서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쿠기 앤 케이크 테코', '테라리움 만들기'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꾸렸고, 전문 차량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도슨트 세션을 운영하기도 했다.

희소성의 럭셔리 정신을 담은 한정판과 '나만의 모델'
한정판은 늘 소비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게 만드는 카테고리다. 하이엔드 자동차의 세계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형식으로 수작이 나온다면, 혹은 전시만 하고 미는 비판매용 품목이 근사한 자재로 소개된다면 희소성의 매혹에 빠져 갈망이 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국 럭셔리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은 최근 한국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 브랜드 '리얼'을 운영하는 김라를 디자이너와 손잡고 이트카를 탄생시켰다. 수목화, 고려청자, 자개 등의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맥라렌×리얼 GT 이트카'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장르를 넘나들며 이종 간 협업을 추구해온 맥라렌의 브랜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프로젝트라고, 메르세데스 그룹의 최상위 라인인 마이바흐에서 내놓은 한정판 에디션도 눈길을 끈다. 마이바흐 양산차 출시 1백 주년을 기념해 1백 대 한정판(국내는

17대 한정)으로 제작한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에디션 100'이란 모델이다. 하이테크 실버+노티블루(nautic blue) 조합의 투톤 컬러를 수작업으로 칠한 외관, 에디션 100 레터링을 포함한 마이바흐 엠블럼 등의 최소한 요소를 갖춘 '궁극의 럭셔리'를 내세우며 한국이구박을 관에서 처음 공개했다. 얼마 전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도 랜드로버의 상징적인 모델 '디펜더' 탄생 75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75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사전 계약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포르쉐코리아와 K-팝 스타 걸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의 디자인 협업은 단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니는 차량 인테리어 패키지를 활용해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어보는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에서 개인화 수준이 가장 높은 '존더분쉬(Sonderwunsch)' 프로그램을 통해 '꿈', '아이디어',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른 그녀만의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받아냈다. 기반이 된 차량 모델은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다. 지난 10월 12일 서울 강남에 꾸린 존더분쉬 하우스에서 전격 공개한 제니의 포르쉐는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 포 제니 루비 제인(Taycan 4S Cross Turismo for Jennie Ruby Jane)'으로 불린다. 이처럼 한정판을 넘어 유일무이한 '나만의 모델'을 창조하는 개인화 프로그램은 자동차 시장에서 점차 진화를 거듭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글 **고성민**





맥아서 비니언(McArthur Binion)
리만머핀 서울

identity quest



3

얼마 전 영화관에서 막을 내리기 직전에 재즈 공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득 리만머핀 서울에서 진행 중인 미국 작가 맥아서 비니언(McArthur Binion) 전시가 뇌리에 증첩되는 순간이 있었다. 회화에서 리듬이 느껴지는 비니언 작품 특유의 음악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캠페인이 부재하던 시절의 흑인 예술가들이 떠올라서였다. 미국 동부의 작은 항구도시에서 열린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의 1958년 공연 현장을 담은 <한여름밤의 재즈(Jazz on a Summer's Day)>라는 영화에는 당시 재즈의 황금기를 수놓은 루이 암스트롱, 마할리아 잭슨, 셀로니어스 몽크 등 쟁쟁한 뮤지션들이 나왔다. 그들의 황홀한 연주와 목소리에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청중은 대다수가 백인처럼 보였다. 예술 앞에서는 인종차별의 벽이 낮아진다고 하듯, 적어도 재즈의 리듬에 휩쓸린 그 순간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매혹되었고, 낯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많았다. 엄청난 흥을 한 기수가 "여러분 덕분에 내가 마치 스타처럼 느껴진다"면서 감동 어린 표정을 지었는데, 그 말이 어떤 면으로는 슬프게 와닿았다. 'black soul'이 압도하는 재즈의 세계에서 스타로서 당당히 무대에 오른 것인데,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음악에 취한 청중의 모습이 유달리 특별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아마도 그때가 1950년대 말이고 장소적 배경이 백인 부촌으로 통하는 뉴포트여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맥아서 비니언이 젊은 시절부터 활동한 뉴욕이나 시카고의 쿿데 높은 상업 미술계가 당시 어렸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946년생인 맥아서 비니언은 남부 미시시피주 목화 농장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다. 그래서 다섯 살 무렵 가족과 함께 이주한 공업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성장했고, 그 이후로도 줄곧 대도시에서 살아왔지만 스스로를 '시골의 모더니스트(a rural modernist)'라 부를 정도로 자신의 정체적 뿌리를 '농촌'에 두었다. 11명의 아이를 카우는 대가족 틈에서 씩씩하게 자란 그는 글쓰기를 사랑했고, 대학에서 전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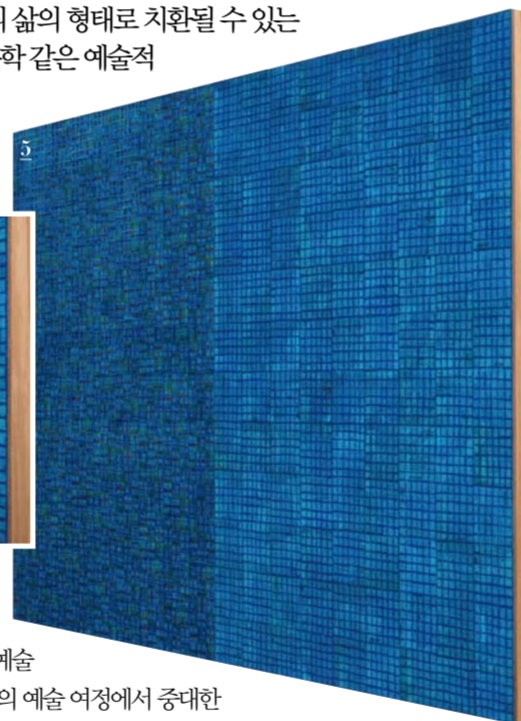
'creative writing'을 택했다. 그런 배경을 지닌 그는 뉴욕 잡지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주로 잔심부름을 하던 이때 모마(MoMA)에 소포를 전해 주러 갔다가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19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드로잉 강의를 듣고 미시간주 명문인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그는 1973년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뉴욕 소호에 자리 잡는다. 장-미셸 바스키아, 브라이스 마든, 솔 르윗 등 동시대 작가들과 호흡하면서 열심히 활동했다. 하지만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꾀웃하게 버텼고, 당시의 들끓는 에너지에 사랑했다. 하지만 차츰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던 차에 평생의 여인을 만나게 된 그는 1990년대 초 시카고로 향한다. 한동안 가장으로서 교직 생활에 충실했던 그는 안식년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보내면서 다시금 아티스트로서의 열정을 이어가게 됐다. 초기에 액션 페인팅의 영향을 받았던 그의 스타일은 점차 절제되고 기하학적 추상으로 바뀌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녹여냈다. 존경받는 교수이자 작가로도 내실을 다져나갔지만 맥아서 비니언이 전속 갤러리를 둔 작가로 활동하게 됐을 때 그의 나이는 65세였다. 그리고 70대 접어들어서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의 'DNA' 시리즈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상승 기도를 타고 있다.

이번 리만머핀 서울 개인전에서 선보인 그의 'DNA' 시리즈와 'Visual:Ear' 시리즈 신작들은 작가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많은 것을 응축하고 있다. 특히 미니멀리즘으로 대변되는 엘리트 미술이나 'BLM' 운동과 결부되는 정치적 미술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수행적인' 예술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여러모로 한국의 단색화와 닮은 구석이 있다). "재즈가 미술사적 선례보다 더 중요

멀리 미국 시카고에서 찾아온 작가 맥아서 비니언(McArthur Binion)은 1970년대 뉴욕의 블랙 아방가르드 흐름을 함께하며 꾸준히 활동했지만 60대 중반에 들어서야 주목받기 시작한, 하지만 현재는 세계 우수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추상화 거장이다. 언뜻 모노크롬 추상화 같은 작업도 있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그의 작업 세계는 또 하나의 소우주를 품고 있다. 캔버스 위에 자신의 출생증명서, 전화번호부, 약보 같은 사적 문서의 사진을 놓고는 그 위에 오일 스틱으로 힘을 주어 그리드(격자) 패턴을 반복적으로 증첩해 그려내는 방식으로 '그리드 추상화'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그는 뒤늦게 조명받은 '블랙 미니멀리스트'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그리드는 미니멀리즘을 수용하고자 한 기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저 반복적인 우리 삶의 형태로 치환될 수 있는 격자 뒤로 자신의 개인사를 담아낸 정체성의 회화라는 것이다. 재즈, 문학 같은 예술적 영감의 재료들을 키워낸 그의 인생 역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다.



4



5

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음악이, 그리고 예술적인 텍스트가 그의 예술 여정에서 중대한 지분을 차지해서일까. 그의 회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질서 속에서도 리듬이 들쭉이, 음표(실제로 음악가 헨리 스톨리드의 악보가 포함된 작품도 있다)가 춤을 추는 느낌도 드는 듯하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열망한다'는 문구가 절로 떠오른다. 10월 22일까지, **글 고성연**

1,3 자신의 대표 회화 연작 'DNA' 시리즈와 'Visual:Ear' 시리즈의 신작을 소개한 맥아서 비니언의 서울 개인전 (DNA:Study/Visual:Ear) 설치 모습. McArthur Binion, DNA:Study/Visual:Ear, Seoul, September 1-October 22, 2022,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Photography by OnArt Studio 2 프리즈 서울 기간에 맞춰 리만머핀 서울에서 막을 올린 자신의 개인전을 위해 프리뷰 행사를 치른 맥아서 비니언(McArthur Binion). 미국 시카고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작가다. 전시는 10월 22일까지. Photo by SY Ko 4, 5 McArthur Binion, DNA:Study/Visual:Ear, 2022, Ink, oil paint slick, and paper on board, 121.9 x 182.9cm,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6 McArthur Binion, 'Sluttering-Standing-Still (LDM Two) V1', 2013, Ink, oil paint slick, and paper on board, 182.9 x 243.8 x 5.1cm,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6



2

Welcome Art Lo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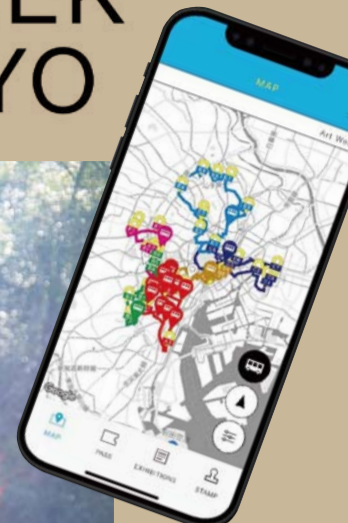
아트 위크 도쿄 2022

ART WEEK TOKYO

지난달 우리나라 문화 예술계를 한껏 달군 프리즈·키아프 아트 페어의 첫 공동 개최를 계기로 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글로벌 아트 신(art scene)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 때마침 팬데믹으로 국경의 빗장이 점차 열리는 한편 행사도 쏟아지고 있다. 백신을 집중한 개인의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내달 초 또 하나의 문화 예술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소프트 론칭'으로 시동을 걸었고, 올가을에는 글로벌 미술 애호가들에게 본격 손짓하고 나선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를 미리 살펴본다.



3



2



5



6

팬데믹 이전에 문화 예술계에서 자주 논쟁된 주제 중에는 어떤 도시가 아시아 허브의 위상을 차지할 것인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콩, 상하이, 도쿄, 서울, 타이베이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최초 도시'나 '문화 예술 허브'라는 키워드를 둘러싸고 펼쳐는 경쟁 구도는 흥미로워 보였다. 팬데믹으로 급재동이 걸렸지만 서로 간의 물리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동면'에 접어든 건 아니었다. 도시들은 자마다의 행보를 꾸준히 해왔고, 이제 하늘같이 점차 자유를 게 열고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다. 서울은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도시로서 매력력을 발산한 동시에 성장 잠재력까지 인정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이웃 도시들도 결코 공백으로 침침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다. 도쿄도 마찬가지다. 도시 곳곳에서 현대미술을 우선해 디자인, 건축, 미시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플랫폼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가 자체 스트리트 론칭 형태로 첫발을 보였는데, 올해는 공적 지원과 함께 미술계의 보다 활발한 참여로 골격과 내실을 한층 더 튼튼하게 다져준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최강 아트 페어 브랜드 아트 바젤(Art Basel)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VIP 프로그램도 꾸린 타이 미술 애호가들의 기대감을 북돋우고 있다.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공식 일정을 이어가는 '아트 위크 도쿄 2022'는 총 52개 기관·조직이 참여하는 7차년 쇼케이스를 표방한다. 도쿄 국립현대미술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같은 유수의 공공 미술관, 모리 아트 센터, 시세이도 갤러리, 에르메스의 도쿄 전시 공간인 르포링 등 사립 미술관과 아트 센터, 그리고 아트 위크 도쿄의 공동 총괄자이자 디렉터 나카가와 아쓰코가 이끄는 화랑인 테이비 나카가와를 비롯해 갤러리 페르망, 블럼 앤드 포, 스킵 디베스 하우스, 키아키키키 갤러리 등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전개한다. 일본 현대미술계 거목 오타케 신로 회고전에도 국립현대미술관, 11월 1일부터를 비롯해 스킵 디베스 하우스, 갤러리 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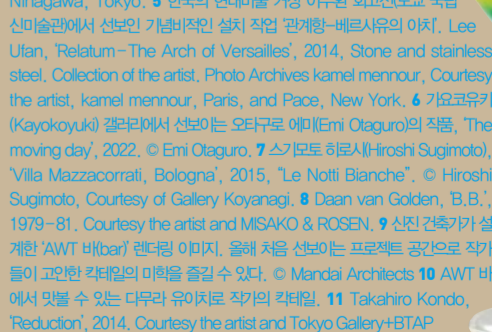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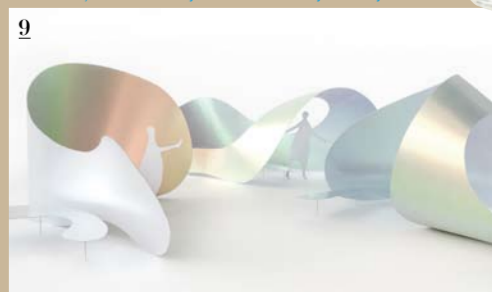


11

기, 가이우치 리코 도쿄 오페라 시티 이비 갤러리 같은 자형한 스폰서들의 개입, 영국 작가 줄리언 오피(Julien Opie), 독일 작가 크리스티아네 로이(Christiane Löhr) 같은 이름도 눈길을 끈다. 간자에 위치한 이태준 유자점에 사는 개념미술의 선구자로 통하는 마르셀 뒤샹의 '여행 기항 속 상차(차선)의 작품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상차와 기항 기항에 넣은 휴대용 미술관 같은 작품) 시리즈를 선보이는 전시를 10월 25일부터, 파리 오페라 하우스와 이태준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11월 5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개관 15주년을 맞이한 도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현대미술 가장 이우환 회고전은 마무리를 아트 위크 도쿄 기간과 함께한다(11월 7일까지), **글 고성연**



10



9

Time Factory

심장의 역동적인 움직임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기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스텐드워치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랑팡 빌라미 스텐드워치 8 데이** 케이스 지름 38mm, 화이트 골드 소재에 베젤에는 다이아몬드를 한 줄로 세팅해 스텐드워치 워터프린트 오븐위크 무브먼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자체 제작한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라버 1333SQ의 정밀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강점이다. 왼쪽 이펙트에는 로고를 넣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드러냈다. 다크 네이비 알라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 차해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 1억1천만원대. 문의 02-3479-1833

파이에 홀로 스텐드워치 지름 42mm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브랜드 시그니처 걸루인 다크 블루 알라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줄하고 멋드러진 외관을 선보인다. 베젤에는 약 1.59캐럿의 5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으며 오븐위크 스타일로 무브먼트에 새긴 파이프 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 8천2백50만원. 문의 1668-1874

브라이트 레디션 퀸텀 레트로그리드 7097 브랜드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사브스 크립션 워터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타임피스로 스텐드워치 워치 중 가장 간결하고 모던한 이름 다음을 선사한다. 특히 12시 방향에 위치한 18K 샬레드 골드 다이얼 창이 독특한 무드를 자아낸다. 섬세한 홀이 파인 케이스 밴드를 갖춘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지름 40mm 케이스에 10시 방향 날짜창이 자리한다. 화이트 골드 핀 버클을 갖춘 알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한 무드를 더한다. 4천3백99만원. 문의 02-6905-3571

제노스 데 피 클래시 제노스 매뉴팩처의 오메트릭 알리트 670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스텐드워치 워치. 원형이 아닌 마름모꼴의 케이스가 시야를 사로잡는 무드를 선사한다. 지름 41mm 브러시드 티타늄 케이스에 반사 방지 처리된 동형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더해 눈을 편안하게 하며, 로통 도금의 슈퍼마그네틱 코팅 인덱스가 미래적인 느낌을 준다. 100m 방수 기능을 더한 알라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1천4만원. 문의 02-3479-6191

카르미에 파사드 카르미에 워치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모델의 스텐드워치 워치 버전으로 역동적 이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동시에 부여한다. 지름 41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메탈 스트랩을 매치해 세련된 감성을 더하며, 블루 사파이어 소재의 크라운과 블루 핸드 코인트를 주어 심상함을 덜어냈다. 오메트릭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블라미 옥토 파나미오 스텐드워치 샌드블라스트 정밀한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컨템퍼러리한 디자인을 완벽히 결합한 블라미 대표 울트라-신 스텐드워치 타임피스. 무려 2.35mm의 극도로 얇은 케이스 안에 복잡한 무브먼트 구조를 정교하게 오븐위크로 세공해 미학적으로 구현했다.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베젤에 블랙 알라게이터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4천2백만원대. 문의 02-6105-2120



JOY GRYSON

Deep impact

깊은 심해처럼 짙은 블루 컬러로 보고만 있어도 풍덩 빠져버릴 듯한 매력의 딥 블루 다이얼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블랑팡 피프티 매건즈 바티스카프** 대표 쿼터 컬렉션인 피프티 매건즈 피티스카프 스리-핸즈 모델을 재해석해 깊은 바닷속을 연상시키는 딥 블루 다이얼을 매혹한 버전. 그레이 플라시마 세라믹 케이스에 변형 방지를 위한 합금 소재와 리퀴드메탈(Liquidmetal)로 인덱스를 표시한 블루 세라믹을 신상해 매력을 배가했다. 지름 43.6mm 케이스에 300m 방수 가능하며 칼리버 1315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1천9백1만원. 문의 02-3467-8426

까르띠에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지름 42mm의 동형 케이스에 핑크 골드 베젤을 매혹해 우아함을 더했으며, 딥한 블루 컬러 다이얼로 신비함을 부여했다. 동일한 칼리버가 주스트랩을 매혹해 통일감을 주며,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을 완성한다. 2천만원대. 문의 1877-4326

피아제 플로 워치 지름 42MM 플라싱 스틸 케이스에 새틴 스트랩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매우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청량한 하늘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다이얼은 경쾌한 무드를 지니며, 슈퍼루비노바 인덱스로 가독성을 높였다. 피아제 자체 제작 1110P 기계식 셀모와 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천9백70만원. 문의 1668-1874

바세론 콘스탄틴 패트리오니 매뉴얼 와인딩 두께가 2.6mm에 불과한 칼리버 1400으로 구동하며, 지름 42.5mm에 두께 9.7mm의 울트라-씬 케이스를 장착했다. 온전한 핑크 골드 컬러 베젤과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블루 다이얼이 클래식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매력을 더한다. 2천9백만원대. 문의 1877-4306

IWC 빅 피아렛 워치 43 직경 43mm의 케이스 사이즈 덕분에 블루 다이얼이 더욱 빛을 발한다. 자체 제작 82100 칼리버로 작동하며, 스페이서 글라스 케이스 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블루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혹해 손목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1천1백만원. 문의 1670-7363

브래게 마린 5517 기존 마린 컬렉션에 스포티함을 더하고 세련미를 구현하는 동시에 브래게의 디자인적 요소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타임피스다. 3행자에 날짜창을 더해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블루 다이얼 가운데 파도를 형상화한 무늬가 독특한 개성을 부여한다. 3천9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파타이 십자자물 쿼터리트로 e스틸™ 블루 프로포드 브랜드 고유의 유니크한 디자인 코드와 기술적 완성도는 유지하면서도 심플함과 모던함에 세련미를 가미한 모델이다. 스퀘어 스틸 케이스와 짙은 블루 다이얼의 조화가 매력적이며, 300m 방수 가능하다. 1천9백70만원대. 문의 1670-1936 에디터 **성영민**



high Definition

모던하면서 룩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더해줄 남성 브레이슬릿.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피아제 포제션 오픈 백글 브레이슬릿** 고급스러운 18K 핑크 골드 밴드에 72개의 브라운엔트릿 다이아몬드 1.71캐럿을 세팅하고 양 끝에 2개의 그린 일라카이트 3.25캐럿을 세팅해 포인트를 더한 브레이슬릿. 2천4백40만원. 문의 1668-1874

다이아니 디 사이트 핑크 골드 오닉스 브레이슬릿 18K 핑크 골드 밴드 양 끝에 블랙 오닉스가 자리해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3-2141

프래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브랜드 시그니처인 꼬임 케이틀이 남성미를 지아내며, 포스텐 바늘은 18K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온온한 반짝임을 더한다. 6백65만원. 문의 02-514-3721

까르띠에 자스트 앵 글루 브레이슬릿 까르띠에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하는 모던하고 현대적인 돛 모티브를 활용해 클래식한 브레이슬릿으로 탄생했다. 화이트 골드 에 로동 도금 소재. 1천만원대. 문의 1566-7277

부세론 클래식 라트르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 밴드에 부세론의 시그니처인 라트르 장식을 얹어 모던하고 시크하게 표현한 브레이슬릿. 라트르 장식에는 11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0.11캐럿과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를 담아 차지만 디테롭게 표현했다. 5백만원대. 문의 02-6905-3322

스피드 아이스크림 퓨어 앵글 아이스 큐브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앵글, 심플하고 포만한 스타일로 장지어나 캐주얼 등 다양한 룩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6백60만원. 문의 02-6905-3390

타미니 T1 와이드 한자드 앵글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심플하면서도 유연하게 표현했다. 또한 T 모터브가 독립적이고 강인한 시그니처 스타일을 완성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에디터 **성영민**

Black & Pink

가장 강렬하고 가장 유희적인 색,
블랙의 매력.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양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재킷 가격 미정
에르메스, 벨벳 소재의 블랙 컬러 보다수트
2백만원대 **알리아**, 비스코스 소재의 후프
레깅스 2백70만원 **로아에**, 폴리에스테르와
실크 혼방 소재의 블랙 컬러 스커트
가격 미정 **발렌티노**, 바진 울 벨트 소재의
블랙 컬러 메탈 버클 모자 98만원 **로저
비비에**, 페이퍼트 소재의 블랙 컬러 펄프스
가격 미정 **자안현도 로시**, 송아지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백 2백25만원 **산비토레 페라기오**.

블랙 사이링 퍼코트 가격 미정 **아미**, 니트
소재의 블랙 컬러 보다수트, 송아지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미니 백 가격 미정 모두
에르메스, 가죽 소재의 버클 장식 블랙 컬러
부츠 가격 미정 **미우 미우**, 크리스탈 실버
이어링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트**.



바진 울 & 캐시미어 소재의 블랙 니트 톱
1백50만원대, 비스코스 소재의 블랙 드레스
1백70만원대, 숭이(가죽) 소재의 블랙 백
3백60만원대 모두 토즈, 시스루 블랙 컬러
드레스, 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비스코스 소재의 블랙 컬러
패들링 재킷 가격 미정 톱 코트,
블랙 컬러 패들링 스커트 가격
미정, 소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백
6백20만원 모두 루이 비통.



비스코스 소재의 워셔드 플루이드
블랙 컬러 드레스 4백66만5천원,
송아지가죽 소재의 다크 그린 컬러 라지
필로우 파우치 2백83만원, 블랙 슈즈
가격 미정 모두 **보타가베네타**, 시스루 블랙
컬러 톱 1백28만원 **블루마린**, 크리스탈 장식
니파 가죽 초커 1백54만원 **마유 미유**.



울 플란넬 소재의 블랙 컬러 테일러드
총 재킷 3백10만원, 장미 모양의
메탈 액세서리 가격 미정 모두 **로에베**.
블랙 컬러 장프 슈트 가격 미정
알리아아, 가죽 소재의 블랙 스트랩 슈즈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리바니**.
스가죽 소재의 세렌디피티 시켈 백
45만8천원 **조이 그라이슨**.



블랙 컬러 테일러드 쇼트 재킷 가격 미정 **오프 화이트**, 울 소재의 부클레 패플링 롱 4백4만원
루이 비통, 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바이커 펜츠, 가죽 소재의 버클 장식 블랙 컬러 부츠, 양가죽 소재의 미니 주얼 장식 블랙 컬러 샤젤 백 2백95만원 모두 **알렉산더 맥퀸**.



모헤어 소재의 더블브레스트 블랙 컬러 코트 8백25만원, 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브리시드 펄프스 1백65만원, 가죽 소재의 블랙 컬러 브리시드 백 4백95만원 모두 **프라다**, 비스코스 소재의 블랙 시스루 자지 드레스 2백99만원 **버버리**, 벨벳 소재의 블랙 컬러 펜츠 9백만원대 **일라이아**, 메탈 골드 이어링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인토니 비카렐로**.

헤어 **한지선**
 메이크업 **이미영**
 모델 **아이린**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보테가 벤투라 02-3438-7682
에르메스 02-542-6622
살비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프라다 02-3218-5320
루이 비통 02-3432-1854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버버리 080-700-8800
일라이아 02-6905-3413
생 로랑 by 인토니 비카렐로 02-549-5741
로아베 02-6905-3470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문바니 02-2015-4655
토즈 02-3438-6008
로지 비비에 02-6905-3370
지안피에로 로시 02-6905-3690
조이 그라이슨 080-202-2002
마우 마우 02-3218-5331
틀 포드 02-6905-3534
드리스 반 노트 1644-4490
오프 화이트 02-517-7572
블루미린 02-6905-3447
이미 02-6956-8782



Denim Jacket

쿠튀르를 연상시키는 장식적인 디테일과 자유분방한 워드웨어 스타일의 테일러링이 조화를 이루는 디스트로이드 데님 재킷. 모노그램 모티프를 입힌 코트 데님에 일본식 보로 기법(boro stitching)을 사용해 플로럴 요소를 수직선으로 더했다. 8만15만원. 앞면 패딩을 장식한 LV 플라워 테파스트리 프린트, 손 끝까지로 연출한 루이비통 시그니처가 감각적인 코트 티셔츠 97만원. 모두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Calfskin Bomber

뛰어난 촉감을 자랑하는 최상급 스웨이드 카프 스킨 보머 재킷. 앞면 패딩을 더해 보온성을 높였다. 칼라, 소매, 앞단 입부를 캐시미어 니트로 처리해 편안하며, 안감에는 부드러운 플러시 레더 소재 웰트 포켓을 더했다. 포켓 주변을 장식한 새들라리 스타치 또한 멋스럽다. 9만34만원. 새틴된 번트 코럴 컬러의 클래식 핏 터틀넥 니트. 버진 울(위시) 울을 사용해 가볍고 따뜻하다. 1백40만원. 모두 **로로 피아나**. 문의 02-6200-7799



Autumn Essentials

쌀쌀한 바람이 부는 계절, 남성의 스타일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2022 F/W 캐주얼 재킷 4.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Padded Parka

해당에서 수거한 재생 플라스틱을 가공한 리노베이션 소재의 파카. 셔츠 칼라, 버튼 클로저, 탈착 가능한 벨트 등 트랜지트먼트의 디테일을 갖춘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특징이다. 도시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장면을 커뮤라주 스타일의 프린트로 재해석했다. 8만10만원대. 터틀넥에 자카드 레더링 로고로 장식한 오렌지 컬러의 스카티 핏 니트 1백70만원대. 모두 **프라다**. 문의 02-3442-1830



Quilted Blouson

울 오버 홀리크 개나주 자수로 장식한 페이퍼트 양가죽 소재의 블루종. 카프 부분에는 회전형 CD 클로저를 더해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양방향 자개로 다량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9만20만원. 블루 & 화이트 스트라이프 코트 포폴린 소재의 오버사이즈 셔츠 1백30만원. 함께 레이어드한 그레이 컬러의 캐시미어 저지 니트 2백30만원. 모두 **디올 맨**. 문의 02-3480-0104 객원 에디터 **이혜미**

Running Mate

말이 편한 것은 물론 센스 있는 룩을 완성해줄, 조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남성 스니커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와베 신성민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은은한 스카티 블루와 그레이의 조화에 오렌지 포인트가 멋진 스니커즈 1백6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상징적인 LV 트래커가 매력적인 스니커즈로, 하우스의 설립 연도인 1854를 의미하는 뒤꿈치의 #54 시그니처 디자인이 특징이다. 1백만원대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스케이프보드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발렌티노의 시그니처 윈 스타드 스니커즈로, 메종의 헤리티지와 현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했다. 1백2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5. 화이트와 그레이의 조화에 오벌라크 자카드 패턴으로 개성을 더한 B27 로우 톱 스니커즈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480-0104. 앞면 FF 패턴과 엠보싱 팬디 레퍼링을 더한 러버 솔이 포인트로, 화이트와 블랙 스웨이드 소재로 제작한 하우스투스 패브릭 디테일의 팬디 매치 스니커즈 1백만원대 **팬디**. 문의 02-514-0682. 비바드한 블루의 컬러감이 경쾌하고 룩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100% 카프 스킨 소재의 CT-02 미드 톱 벨크로 스니커즈 가격 미정 **셀만느**. 문의 02-6905-3736 에디터 **성성민**



작은 디테일로 은근하게 드러내는 세련된 감각. 가슴 포켓에 루이비통 스타일링 DNA에디션 라벨을 스타일링 DNA 코튼 셔츠는 스커어 컬러, LV 스타일링 디테일의 자개 버튼이 특징이다. 83만원. 짙은 네이비 컬러와 대비를 이루는 오렌지 컬러 자수 레터링 로고로 포인트를 준 LV 텍 실크 타이 32만원. 모두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취향적인 것으로 완성된 드레스 코드의 품격. 핑크 플로어 컬러 오버헤드 패턴 코튼 셔츠 캐주얼함과 포퍼블을 지닌 유문 유안한 셔츠가 특징으로 오렌지 컬러 레터링 로고로 포인트를 준 루이비통 셔츠 86만원. 그리고 자개 버튼을 스타일링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실크 타이 32만원. 모두 디오르. 문의 02-3432-0104

Eye Catcher

개성을 드러낸 감각적인 스타일로 시선을 끄는 2022 F/W 맨즈 아이웨어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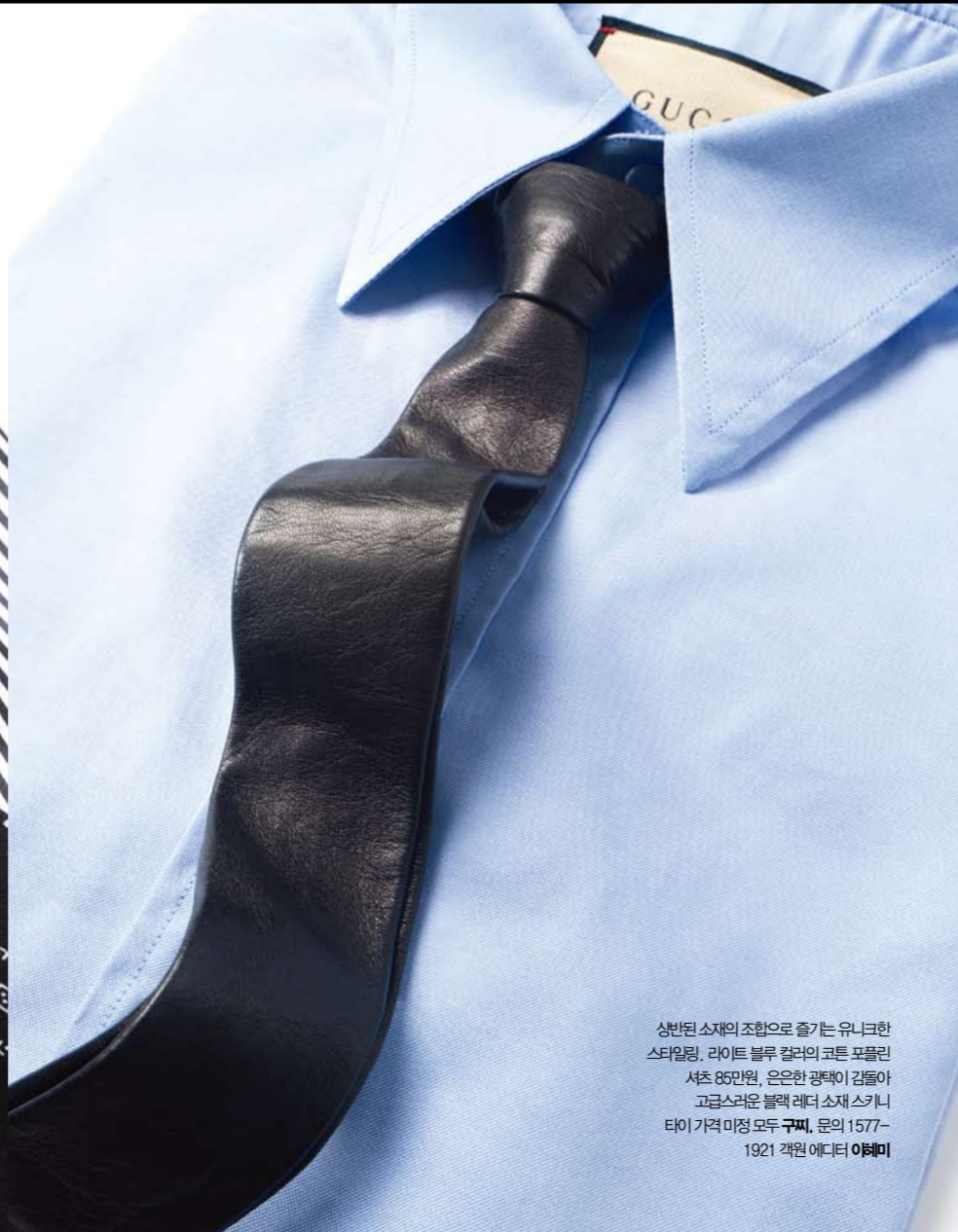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광 블랙 컬러의 맥킨 그레이프 마스크 선글라스. 볼드한 템플 위로 대담한 그레이프티 로고를 더했다. 솔리드 베이직 컬러의 반투명 렌즈를 더해 한층 더 감각적이다. 44만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레트로 무드의 골드 톤 메탈 소재 라운드 프레임 선글라스. 100% UVA/UVB 차단 가능한 투명 렌즈를 장착했다. 60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921. 디오르 하바나 인사이트 포인트를 준 유광 메탈 골드 컬러의 메탈 프레임 선글라스. 그린 바르베리나 렌즈를 장착했다. 88만원 오메가. 문의 080-050-8383. 모노그램 패턴을 새긴 골드 컬러 메탈 바, 하우스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한 장식적인 한지 등 화려한 디테일이 멋스러운 밀리아네어 선글라스 1백10만원대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스타일링 디테일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다룬 브라운 렌즈 선글라스. 클래식한 스커어 세이프로 어떤 룩에도 어울리기 좋다. 가격 미정 몽클레르 루네트. 문의 080-311-0000. 옐로 렌즈를 장착한 에비에티터 선글라스. 일파켓 T 로고를 연상시키는 더블 브리지 디자인이다. 가격 미정 톰 포드. 문의 02-6905-3534 객원 에디터 이혜미

Be Gentle!

날카로운 취향과 남다른 안목을 지닌 남성을 위한 셔츠 & 타이 스타일링 제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포멀 룩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재치 있는 패턴 온 패턴 플레이. 배색 컬러로 포인트를 준 블랙 & 화이트 스트라이프 포폴린 셔츠 59만원대, 반짝이인 78% 실크 타이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폴폴 라벨. 문의 02-3438-6235



상한된 소재의 조합으로 즐기는 유니크한 스타일링. 라이트 블루 컬러의 코튼 포폴린 셔츠 85만원, 은은한 광택이 감동아 고급스러운 블랙 레더 소재 스카니 타이 가격 미정 모두 구찌. 문의 1577-1921 객원 에디터 이혜미

lifelong journey companion

여행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생 동안 여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프리미엄 러기지 브랜드 리모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설계 및 제작되어 품질에 대한 믿음은 물론 유구한 전통에 현대 기술의 정밀성을 결합해 캠페인마다 늘 혁신적인 모습을 선보인다. 이번에 새로운 캠페인과 함께 리모와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매장을 오픈하며 또 다른 혁신으로 새롭게 다가온 리모와를 만나보자.



독일 엔지니어링의 예술을 세계에 전하다

1898년 쾰른에 처음 창립된 이래 리모와는 모빌리티 특의 복원력과 경량성, 안전성을 통해 높은 인목을 지닌 여행객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그들의 여행 경험을 한발 앞서나가게 했다. 또 한번의 도약이 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리모와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평생 동안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줄 진정한 여행 가방, 캐리어의 본질과 리모와의 독일 엔지니어링을 예찬한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키워드인 'Ingenieurskunst'는 오직 독일어에만 존재하는 단어로, 이는 엔지니어링의 예술로 번역되는 캠페인의 타이틀이다. 리모와는 캠페인 타이틀처럼 최고의 기능성을 보장하는 소재 및 제조 공정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리모와의 시그니처 알루미늄을 향한 찬가인 키네틱 설치 작품을 다양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구 곳곳을 누비면서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 즉 '예술로 독일 엔지니어링을 제시하고 경험하게 한다. 6천 개의 리벳, 1백80장의 양극산화 알루미늄, 클래식 캐빈 수트케이스의 셀로 제작한 설치 작품들은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와 크롬, 매트 등 다양한 소재의 하모니는 물론 리모와 엔지니어들이 마스터한 섬세한 수공예 기법과 중장비가 한데 어우러지는 한 편의 교향곡 같은 관계성에 이르기까지, 아이코닉한 러기지를 탄생시킨 철두철미한 장인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세계의 다양한 장소를 순회하는 몰입형 AR 체



1

3

RIMO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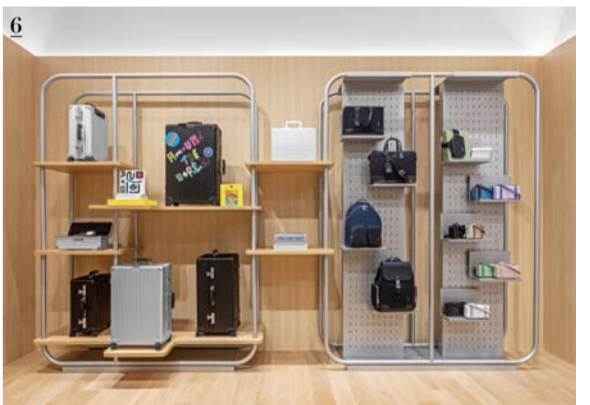
4

험 또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관객들이 클래식 캐빈 수트케이스의 엔지니어링 단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와 마케팅 본부장 에밀리 드 비티스(Emelie De Vitis)는 독일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가 진조하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교향곡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따른 전제는 단순하다. 클래식 캐빈을 생산하는 곳은 독일이지만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여행하게 될 세상의 모든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또 2022년 7월 구매부터 리모와 수트케이스의 모든 기능들

평생 보장하는 보증 서비스까지 제공해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되어줄 예정이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아노말리 베를린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번 캠페인은 아이 엠 히어(I AM HERE)가 연출을 맡았으며, 세계 곳곳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리모와 그리고 Art & Science

여행을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프리미엄 러기지 브랜드 리모와가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1층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1년여 만에 무려 2천4백만 명 이상의 방문 고객을 맞이하며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라 더 큰 의미를 지닌다. 9월 22일 포문을 연 리모와의 대전신세계 내 매장은 아이코닉한 알루미늄 소재와 따스한 느낌을 주는 우드가 조화를 이루며 모던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아우른다. 매장 중앙에는 수하물 사이즈의 오리지널 실버 컬렉션 제품들이 예술 작품처럼 배치되어 있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다. 매장 오른쪽에는 고객 서비스 센터가 자리해 간단한 체크인 서비스부터 각종 A/S 서비스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구매뿐 아니라 그 후 고객이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리모와만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또 매장 내에는 시그니처 알루미늄 소재의 오리지널과 클래식 컬렉션부터 가벼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에센셜 컬렉션, 그리고 두 가지 혁신적인 소재의 만남이 인상적인 하이브리드 컬렉션까지 다양한 수트케이스 시리즈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일상에서 다채롭게 사용하기 좋은 네버 스틸(Never Still)과 아이코닉한 소재를 활용한 휴대용 크로스백 퍼스널(Personal)로 이뤄진 백 컬렉션 또한 제공한다. 그 밖에도 커스터마이징 핸들과 휠, 아이폰 케이스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여행부터 일상까지 모두 아우르는 리모와의 세계를 온전히 경험케 한다. 매장 오픈 날, 배우 문채원과 이재훈이 방문, 실버 알루미늄 소재의 퍼스널 크로스백 보디 백과 캐빈 사이즈 수트케이스를 매치해 눈길을 끌었다. 리모와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30분 연장 오픈한다. 문의 042-607-8125 예티 **성영민**



1 리모와 엔지니어링의 예술 캠페인에서 아트 작품처럼 연출된 리모와 캐리어의 모습. 2 자연을 배경으로 여행의 실용을 가져다주는 캠페인의 한 장면. 3 리모와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점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배우 문채원. 4 퍼스널 크로스백 보디 백 실버와 클래식 캐빈 실버를 매치한 배우 이재훈. 5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1층 리모와 매장의 외관. 6 리모와에서 출시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7 체트립과 A/S 서비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다.



honey glazed

무르익은 과일처럼 유려하게 빛나는
글라스웨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조각가 브랑쿠시(Brancusi)의 자오메트릭 토템 작품을 연상시키는 베가 마티니 글라스(Vega) 2백50만원 **매종 비가라**, 문의 02-3448-3778, 퍼플 컬러가 은은하게 감도는 영롱한 진은 글로리 G(Glory G) 작가의 곱돌릿 잔이다, 17만원 솔루나리빙, 문의 02-736-3618, 물드를 사용한 블로잉 기법으로 만든 버블 컵 그린 2단 2만8천원 **한우원**, 문의 02-790-8003, 투명한 글라스가 장자리에 물감을 칠한 듯한 듯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전수빈 작가의 링드 볼(Ringed Bowl) S 3만6천원 **더문란상**, 문의 1522-0074, 군더더기 없는 유리잔에 오렌지색 스트라이프 블록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준 스트라이프 텀블러 3만6천원 **더문란상**, 문의 1522-0074, 거품처럼 볼륨감 있는 형태의 버블 컵 알베 1단 2만5천원 **한우원**, 문의 02-790-8003, 테두리의 포인트 컬러와 바닥 부분의 스크래치 마감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스케일 플레이트(Scale Plate) S 4만9천원 **더문란상**, 문의 1522-0074, 잔부터 손잡이까지 버블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쿠이 버블 칼렉션 그린 4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주얼리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디자인의 생-쿠이 토미 칼렉션 샴페인 잔(2ea) 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개인 에디터 장은지**



(위에서부터) 한강주조와 대원제분 공표가 합입해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해 만든 무김미로 생미갈리 표본 미갈리 4ea 1만8천원 **한강주조**, 문의 070-8836-1115, 기존 원소주와 달리 숙성을 가지지 않은 중류주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소주 소미링 1만2천원대 **원소퍼리츠**, 문의 070-4349-3175, 베리의 상큼함을 고스란히 담은 장맛 빙 애플 사이더 요새로제 1만9천원대 **덴싱사이더**, 문의 043-844-1616, 싱글몰트 진 정원을 해본 힘 바번 오크 통에서 1년 이상 숙성에 풍미를 높인 정원 배럴에이저드 진 13만원 **스리산사이더스**, 문의 070-4282-8190, 헬라권을 맞아 판매하는 시즈널 사이더로 송주 시디에 호박, 시나몬, 닥터올 더해 스페이서한 풍미가 매력적인 강가미린 6천원대 **덴싱사이더**, 문의 043-844-1616,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강골과이어 품종으로 만들었으며, 국내 최초로 비건 인증을 받은 로제 와인 또다른 사선 No.1 3만원대 **대동아주도**, 문의 010-4715-3100, 버터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버터리한 풍미와 사과, 배, 양대 과일의 향을 즐길 수 있는 버터와일드 1만900원 **블랑자리비르**, 문의 https://www.instagram.com/beurre_seoul **개인 에디터 장은지**



Bottoms Up!

오감을 예리하게 일깨워줄 요즘술,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Exploration of Incense

내로라하는 프랑스 니치 퍼 브랜드들이 대거 국내에 상했다. 이제 파리는 골목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다. 향미니아들이 기다렸던 새로운 니치 향수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디케이 루즈 스킨오일 오일 퍼퓸 프랑스 파센 학교와 조향 학원 등을 수료하고 세계적인 원료사인 지본다에서 커리어를 쌓은 디비드 베네딕이 직접 조향에 참가하는 프렌치 니치 퍼퓸 브랜드다. 가장 대표적인 향인 이 제품은 피리의 피가르 구역에 위치한 피갈(Pigalle)이라는 동네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향으로 담았다. 100ml 26만5천원, 문의 1800-5700

디 디퍼렌트 캄파니 수블림 발카스 2009년 역사의 프랑스 캄페리니 럭셔리 니치 퍼퓸 브랜드로 장 클로드 엘레를 비롯한 최고의 퍼퓸마스터들이 친화감을 위한 브랜드 철학을 반영해 제품을 생산한다. 그중 수블림 발카스는 매혹적인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우아한 풍격을 향으로 구현했다. 100ml 26만5천원, 문의 080-930-8989

르 쿠방 오일 퍼퓸 심플리아 사이아 프랑스 비진 니치 퍼퓸 브랜드의 실용적 루이 플레가 머물렀던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수도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특히 희귀 등

물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의 초상을 그려낸 예술적인 오일 퍼퓸 심플리아 캄페션의 보트에는 각 동물이 상징하는 그래픽이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 중 사이아 향수는 영랑에서 영감을 받아 생세하고 우아한 향을 표현했다. 100ml 12만5천원, 문의 080-990-8989

오르메 르 파상 프랑스 니치 퍼퓸 브랜드 오르메는 청사자 빌리스트와 그의 어머니 마리 리즈가 예술, 문학, 자연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브랜드다. 특히 너도밤나무를 잎을 깎아 만든 보틀 캡 디자인이 창작과 장인 정신에 대한 감성을 조화롭게 나타내 준다. 르 파상은 고전적인 남성의 분위기를 영성사카 라벤더 향으로 성숙한 향과 강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100ml 30만8천원, 문의 02-3446-5724

프랑방 알리랑 오일 퍼퓸 1270년부터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코냑을 생산하는 기업 프랑방이 코냑 제작 노하우와 기계를 담아 향수를 제작한다. 최상급 향 원료를 사용하며 코냑 병을 영성사카는 보틀 패키지에 담겨 감성을 부여한다. 브랜드의 대표 향인 이 제품은 과일

과 꽃의 조화를 시적해 감이 있는 코냑의 느낌을 담기 위해 우드의 풍부함과 화이트 레인의 달콤함을 담았다. 100ml 23만9천원, 문의 1800-5700

조보이 제로보임 고조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니치 퍼퓸 편집숍인 조보이에서 직접 출시한 향수로 어떤 노메드를 위해 작지만 어디서든 강한 향을 줄 수 있도록 고안한 작은 패키지를 콘셉트로 한다. 강렬한 오렌지 컬러 보틀이 시선을 사로잡는 고조는 울타의 고조상에서 이름을 따왔다. 프루티 계열의 향으로 사적해 우아와 스키아리한 향을 더해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30ml 17만5천원, 문의 1544-5114

베르노트 7버이 미모사 인 디 에오 퍼퓸 프랑스 앙티브에서 나고 남해안의 도시에서 자란 베르노트 7버이가 창립한 니치 퍼퓸 브랜드다. 지중해의 에너지를 받아 활기차고 자유로운 무드를 향으로 표현한다. 이 제품은 미모사 플라워 향을 생세하게 재해석해 변하지 않은 오묘하고 매혹적인 향을 선사한다. 85ml 41만2천원, 문의 1800-5700 에디터 선정인

Pact Check

수정 화장용을 넘어 파운데이션을 대체할 새로운 쿠션 팩트의 도약.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클레르보 보미 레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내추럴 은은하고 내추럴한 피부 광채를 선사해주는 클레르보 보미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에서 새로운 쿠션을 출시했다. 독자적인 유틸리티 젤 세럼 포뮬러를 함유해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탄력을 끌어올려 매끈하고 탭 탭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14g 11만5천원, 문의 080-564-7700

YSL 뷰티 푸쉬 에멀리 NEW 매쉬링크 쿠션 피부에 편안하게 밀려 들어오는 가벼운 지속력을 발휘하는 YSL 뷰티 쿠션. 0번 신세럼의 비온시 포뮬러와 미아크로 메시 필터가 스칼라 내용물을 고르게 담아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높은 커버력과 매끈한 피부톤을 선사한다. 풍부한 스킵케어 성분을 함유해 촉촉한 윤기를 더해 한층 더 자연스러운 글로어를 선사한다. 12g 9만2천원, 문의 080-835-0089

디올 포어비 스킨 글로우 쿠션 케이스의 두께가 더 얇아져, 콤팩트한 사이즈로 편의성을 높였다. 루나스 글로 퍼시픽 효과로 건조하고 노후된 광채를 더해 더욱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한다. 2시간 지속되는 유지력과 잡티까지 커버하는 8이 커버력으로 두껍지 않지만 완벽한 피부 메이크업을 돕는다. 14g 8만9천원, 문의 080-342-9600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마이아르마니 투고 쿠션 NEW 플리시 케이스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 컬러가 재규어 1위 제품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은 레드 쿠션이 파서-블러하고 각진 디테일을 더한 케이스로 돌아왔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클래식하면서도 독특한 디테일에서 영감을 받은 플리시 문양의 케이스가 그 주인공. 제로백 또한 훌륭하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파운데이션 특유의 가볍고 편안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 케이스 4만8천원 + 리필 15g 6만3천원, 문의 080-022-3332

랑콤 링 이블 스킨-핏 매쉬 쿠션 높은 커버력과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으로 유명한 랑콤 파운데이션의 기술력을 쿠션에 그대로 담았다. 농축된 크림 포뮬러를 적용하여 밀티링 해주는 에어 메이크업 기술을 적용해 두껍지 않게 밀리며 내추럴한 피부와 피부 연출을 돕는다. SPF 50 PA++++의 높은 자외선 차단 성능을 담. 13g 8만5천원, 문의 080-022-3332

바버리 매트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가벼운 포뮬러에 함유된 다나우 파우더와 빈아우 콩 추출물이 피부 속은 촉촉하고 겉은 매트하게 연출해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보충한 피부를 선사한다. 12시간 지속되는 고농축 보습 효과를 더해 탭 탭한 이 피부 톤을 만끽하게 하며 메이크업을 오랜 시간 지속시킨다. 14g 8만8천원, 문의 080-850-0708

데코레 NEW 더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프레스 스킨케 어 제품 같은 촉촉한 텍스처가 밀착되면서 피부 톤이 매끄럽고 쫄쫄하게 마무리해준다. 더블 액션 쿠션 파우더가 피부 분진의 광채를 살리면서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선사하고 글스러운 피부 표현을 돕는다. 12g 6만7천원, 문의 080-568-3111 에디터 선정인

editor's Pick

날씨도 마음도 설레는 계절,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달의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베다 LXNEW 비베어 카바문서 #21호** 평소 기 초 메이크업 시 우수한 커버력과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에 신형 쓰는 팬이라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쿠션 사용 시 슬림 레이어링으로 피부에 촉촉히 밀착되며 공기 요철을 생생하게 카바해 매끈하게 보인다. 피부 통쾌스틱까지 지탱해 다크닝 걱정 없이 12시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 13g 2인1천원, 문의 080-023-7007. *_by 인턴 에디터 신성민*

파우치발 푸어 올리브 오일 비오한드 워시 샤워 후 피부 민감과 건조함이 느껴졌던 찰나 이 제품을 만났다. 외출 모양도 귀여운데 유가농 올리브 오일로 만든 100% 천연 비누라 성분까지 착하다. 트러블 및 예민성 피부에도 깔끔하고 순하게 세정 가능 하며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보디 각질 및 블랙헤드 케어에도 제격이다. 95g 1인2천원, 문의 02-6010-7903. *_by 에디터 신성민*

나스 피우레트 림스틱 #132 드라핀 걸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자연스레 림 스틱부터 찾게 되었다. 나스 피우레트의 발색력과 지속성은 차원이 다르다. 총 여섯 가지 컬러 중 특히 이 강렬한 비버드 사이렌 레드 컬러는 메이크업 마무리에도 가볍게 밀착되고, 부드럽고 쉽게 발라 지루한 편이 아니다. 1.5g 4인3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장미윤*

영리 큐어 파워 파우더 에센스 화장품이 피부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에디터에게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 다음 제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파우더 에센스는 필수다. 이 제품은 적절한 점성이 있는 텍스처로 피부를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도 잔여감이 있거나 너무 끈적하지 않아 다음 제품을 바를 때 이질감이 없어 만족스럽다. 250ml 7인5천원, 문의 1588-7667. *_by 에디터 신성민*

조 라브스 프래그런스 비디 미스트 #비타버 하루 종일 향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디 미스트를 사용하는 것. 가볍고 빠르게 건조되지만 피부 윗층에 베어 들어 오랜 시간 생체에게 향을 풍어준다. 조 라브스의 아이코닉한 네 가지 향 중 비타버는 베타버, 카리움, 주피터 베를 블렌딩해 스키아미노와 피프티퍼 부드러운 향이 특징. 스카는 것만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우뚝아 보이게 만드는 매력 있다. 100ml 1인2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장미윤*

탈라룸 HM+Barrier™ 페이스 클렌저 천연 성분과 민감 없는 피부 세정제를 찾다 발견한 제품. 자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풍성한 거품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세정할 수 있다. 미산성 pH 농도로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모공까지 깔끔하게 씻어내며, 강력한 보습 효과까지 느낄 수 있어 속망이 깊어 충족하게 마무리된다. 150ml 3인8천원, 문의 1533-9253. *_by 인턴 에디터 신성민*

구피 뷰티 양미스트 가든 컬렉션 라브 영 유얼 디아스 옛 향수병을 오아주듯 dot 파우치부터 반트하고 고품스러운 무드를 자니는 구피 뷰티 양미스트 가든 컬렉션 중 새로 출시한 향이다. 우디 계열의 스파이시한 향을 여성스럽게 재해석한 듯 한느낌. 블랙 페퍼, 인센스, 사자유의 향이 아우러져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향을 선사한다. 100ml 45천원, 문의 080-860-0708. *_by 에디터 신성민*

디올 5 골드로 꾸뛰르 #1947 미스 디올 양미스트 에디션 에디션 새 시즌 새로운 컬러 조합으로 선보이는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된 디올 뷰티의 시그니처 아이 팔레트. 이번 시즌 컬러는 은은한 인디 핑크와 담담 파블의 조합으로 화려하고 빛나며 생기 넘치는 광채 피부를 완성해준다. 107가지 컬러 세트 중 'ON'은 어린 피부 톤에나 잘 어울리는 뉴트럴 세트다. 35ml 1인2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신성민*

발롱 바이 펄 크림 꾸뛰르 크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새로운 놀이들이 스킨에서 마사 지를 받는 듯한 부드러운 리우업을 경험하게 한다. 은은한 꽃 향기를 풍겨 주는 것은 엄. 이 크림을 바르고 지고 일어나면 자진 피부가 회복된 듯 환하고 매끈해진다. 50ml 54천원, 문의 070-4352-5203. *_by 에디터 신성민*

글랑 베리르 골드 스킨 피오에디션 클로우 SPF 25+++ #ON 요즘 '얼굴에 뭐 했 어?'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만든 제품. 24K 골드와 화이트 자약 추출물을 함유한 업 그라이드 버전으로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매끈하고 빛나며 생기 넘치는 광채 피부를 완성해준다. 107가지 컬러 세트 중 'ON'은 어린 피부 톤에나 잘 어울리는 뉴트럴 세트다. 35ml 1인2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장미윤*

스쿠 비아름 더 스무딩 크림 비범이 쓸쓸해지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명진과 주름. 무엇보다 눈가나 입가, 이마 등 이 고민이다. 이 크림은 매우 리치하고 부드럽고 질감으로, 스카이어 미차 막 단계에 고민되는 스모어인 발라주니 윤가기 자르 호르다. 지속 시간 역시 길어 하루 종일 망치지 않았다. 극건성 피부에 적극 추천한다. 15g 2천원, 문의 02-3479-1621. *_by 에디터 장미윤*

조보이 라벤 미 가을을 맞이해 어떤 나진 피부품을 써볼까 고민하던 찰나 조보이에서 선보인 관능적인 향, 라벤 미를 선택했다. 라벤 미류는 진자와 카리움 향이 마치 낮은 밤 따뜻한 우유에 스파이시 티를 꿀맛처럼 듯한 느낌이다. 비벌의 정원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하며 달콤하게 속삭이는 듯한 향에 은은하게 빠져든다. 100ml 25천원, 문의 1544-5114. *_by 인턴 에디터 신성민*

올라 림글샷 세럼 일년 최후로 주름 개선 분야에서 우위점으로 지칭된 이 제품은 올라의 독자적 림글샷을 접목해 주름 케어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저항이 낮은 알기 필자 주름 및 이마의 긴 주름에 작각 방향으로 편하게 바를 수 있어 다자 인까지 신경 쓴 것이 인상 깊다. 현재 면세점에서만 구입 가능. 120g 106달러, 문의 02-759-6748. *_by 인턴 에디터 신성민*



SHOWROOM

BEAUTY



아베다 핸드 릴리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워드 카밍 샴푸 아로마 유방암 인식의 달인 10월, 이 특별한 달을 맞아 아베다에서 유방암 캠페인을 위해 리미티드 핸드 릴리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워드 카밍 샴푸 어 아로마를 출시한다. 257가지 순화· 식물 에센스를 함유한 아베다 특유의 샴푸어™ 진정 아로마가 특징



이더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해 제로 패키지를 생산한다. 10월 한 달 동안 한정판 핸드 릴리프™를 구입할 때마다 10달러를 유방암 연구 재단(BCRF)에 기부한다. 문의 02-3440-2905

샤넬 노르르 알루르 마스카라 샤넬에서 시크한 블랙 마스카라에 슬림하고 유연한 레드 컬러 브러시를 더한 노르르 알루르 마스카라를 선보인다. 한 번의 클러시로 열 수 있는 이번 신제품은 식물성 왁스 성분을 담아 우수한 볼륨과 컬링, 지속력을 경험할 수 있다. 속눈썹을 보호하며 이질한 컬링을 원한다면 노르르 알루르 마스카라를 추천한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스위스퍼펙션 셀룰라 퍼펙트 리프트 크림 럭셔리 스위스 스킨케어 브랜드 스위스퍼펙션에서 피부 보습 장벽을 건강하게 해줄 셀룰라 퍼펙트 리프트 크림을 소개한다. 이 제품은 자이안 아이리스 뿌리에서 추출한 셀룰라 액티브 아이리스(Cellular Active IRSA)에 보습 성분인 시아버터, 달맞이꽃 오일 등을 더해 피부에 활력과 윤기를 부여한다. 환절기를 맞아 셀룰라 퍼펙트 리프트 크림으로 탄탄하고 건강한 광채 피부를 만들어보자. 문의 1644-4490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크림 연작에서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을 대비해 메이크업 첫 단계로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크림을 추천한다. 당구와 감초 추출물로 이뤄진 베이스 크림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채워 메이크업 시 최적의 상태를 만든다. 가볍고 티끌받지 않는 밀착력과 지속력으로 피부 본연의 결을 살리며 오랫동안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 문의 1644-4490



JEWEL &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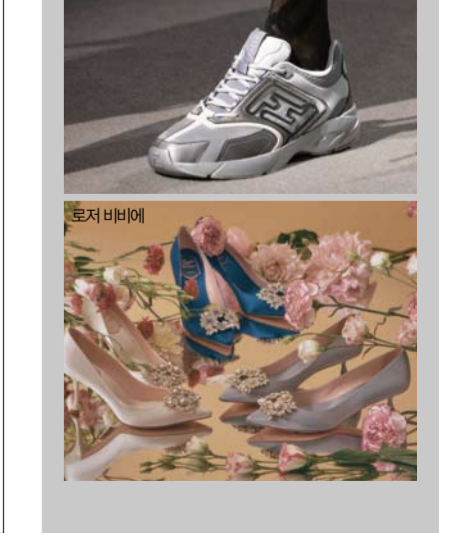
디올 파인 주얼리 디올 그랑 발 덴텔 디올에서 디올 그랑 발 덴텔(Dior Grand Bal Dentelle) 컬렉션을 선보인다. 다이얼 위에서 작동하는 로터와 움직임은 마치 무도회에서 춤추듯 회전하는 화려한 드레스를 떠올리게 한다. 이번 컬렉션은 디올의 쿠투르 드레스에 입체적인 새틴과 피유를 더한 듯한 실크·메시·깃털·스톤 디자인에 골드빛 스테드를 담았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다채로운 컬러로 환율한 분위기 속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480-0104



은 가이츠 동봉고동 유잉를 지어 새롭게 오픈하는 판화 공방 'GH Print Studio'를 처음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갤러리 가이츠의 대표 소속 작가인 오수환·이수경·에다강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3442-3359

태그호이어 카벳트 칼리버 E4-포르세 에디션 스위스 아방가드 워치메이킹 브랜드 태그호이어에서 포르세의 대표작인 잔치 모델, 타이콘에서 영감을 받은 카벳트 칼리버 E4-포르세 에디션을 공개한다. 이번 에디션은 워치 페이스에 차양 장식을 표시하는 기능을 더했고, 스트랩은 블랙 소 가죽과 타이콘의 외관 색상 프로즌 블루 등 포르세 자동차 내부의 가죽 마감 색상과 구조를 반영해 디자인에 통일성을 주었다. 9월 1일 글로벌 런칭했으며, 전국 태그호이어 카벳트 인점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48-6021

포멜라토 포멜라토: 밀라노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밀라노 패션위크를 기념해 포멜라토가 지난 9월 22일 새로운 글로벌 광고 캠페인 '포멜라토: 밀라노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를 선보였다. 포멜라토가 탄생한 도시인 밀라노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캠페인은 특색 있는 장소와 건축물을 포멜라토 컬렉션과 함께 영상으로 담았다.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포멜라토의 화려한 하이주얼리 컬렉션을 만나보자. 문의 02-3143-9486



FASHION



CHANEL.COM |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 *WHITE GOLD WITH A THIN LAYER OF RHODIUM PLATING FOR COLOR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IN 18K BEIGE GOLD AND 18K WHITE GOLD*.

CHANEL

FINE JEWELRY